

## 남녀 프리틴 세대의 외모관리행동 영향요인 -미디어관여, 신체만족,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김아날리아 · 이수경 · 고애란<sup>†</sup>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

### Effects of Media Involvement, Body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n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Preteen Boys and Girls

Analia Kim · Soo Gyoung Lee · Ae-Ran Koh<sup>†</sup>

Dept. of Clothing & Textiles, Yonsei University

(2006. 5. 12.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identify gender differences i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influencing variables(media involvement, body satisfaction and self-esteem), 2) the effects of influencing variables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3)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among influencing variabl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58 fifth and sixth grade girls and boys of five elementary schools in Seoul, Korea vi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Regarding the gender differences in research variables, preteen girls showed more interest in clothing/hair style management, weight management, TV involvement and celebrity imitation than preteen boys. Girls showed lower level of satisfaction than boy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media involvement, body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For boy group, clothing/hair style interest was influenced by celebrity imitation, and weight management by TV involvement, body satisfaction and school self-esteem, and height management by celebrity management and school self-esteem. For girl group, clothing/hair style management was influenced by celebrity imitation and general self-esteem, and weight management by body satisfaction, general self-esteem, celebrity imitation and TV involvement, and height management by school self-esteem, TV involvement, time spent watching TV and general self-esteem. From the results of analyzing relationships among influencing variables, it was found that media involvement influenced self-esteem; TV involvement and celebrity imitation influenced school self-esteem; body satisfaction had the effect on all three sub dimensions of self-esteem in boy group. For female group, TV involvement had the effect on body satisfaction, and celebrity imitation on general self-esteem, the family self-esteem and school self-esteem, and body satisfaction on all three sub dimensions of self-esteem.

**Key words:** Pretee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Media involvement, Body-satisfaction, Self-esteem; 프리틴, 외모관리행동, 미디어관여, 신체만족, 자아존중감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arcoh@yonsei.ac.kr

## I. 서 론

최근 ‘프리틴(preteen)’이라 불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새로운 소비 집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12세에 이르는 이들은 ‘청소년’ 나이보다는 어리지만 ‘어린이’라고 보기엔 조숙하고 자기주장이 뚜렷하여 주체적 소비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이들의 시장성을 겨냥하여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American Heritage 사전 2000년 판은 프리틴을 전청소년기(preadolescent)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같은 의미로 서브틴(Subteen), 트윈(Tween), 로우틴(Lowteen)이 사용되기도 한다. 연령 범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프리틴은 대체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태어난 1989~93년생 세대로 볼 수 있다(김은경 외, 2002).

초등학교 고학년은 본격적으로 사춘기 성장급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산업화에 따른 부유함과 함께, 좋은 영양상태와 의학의 덕으로, 또한 주위환경의 자극과 긴장이 증가함에 따라 사춘기 시작 연령이 낮아지게 되었다(송길연 외, 2005). 사춘기의 신체 변화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외모에 몰두하게 하고 의복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일수록 자신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여 더 많은 관심을 외모에 집중하고, 외부로부터 많은 자극과 영향을 받게 된다(Hansen & Hansen, 1988).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사회적 환경이 학교로 넓혀짐에 따라 타인과의 대화나 관찰을 통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이상적인 신체상을 형성한다(신관호, 1996). 즉, 프리틴 세대는 타인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고 만족불만족하며, 이것은 이들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시기는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한 초기 준비단계로 사회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매스미디어의 접촉을 통해서 사고방식, 태도,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TV 광고, 드라마 등 대중문화 노출도가 높아지면서 프리틴 세대는 장난감을 갖고 노는 대신 TV 드라마에 더 심취하고 성에 대하여 호기심이 많고, 성인들과 비슷한 스타일을 선호하며(“프리틴세대”, 2005), 연예인, 운동선수를 우상화하여 의복과 액세서리, 몸짓 하나까지 모방한다(김민지, 2000). 이러한 연예인 모방은 프리틴 세대의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과 또래 집단 소속에 대한 욕구로부터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의 여과되

지 않은 다양한 정보들은 예민하고 분별력이 부족한 프리틴 세대의 신체만족과 자아존중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프리틴 세대들의 자기표현욕구가 점차 뚜렷해지는 요즘의 현상은 외모관리와 소비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자기표현 능력에 있어서 바람직한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인지발달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이들 세대가 외향적인 자기표현과 소비성향에 대해서만 주목받는 것은 부모와 교육종사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소비계층으로써 관심을 갖기 이전에, 프리틴 세대의 행동과 심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프리틴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들의 자기표현의 주요 척도인 외모관리행동과 이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미디어관여와 발달적 측면의 주요인인 신체만족 및 자아존중감을 포함하여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프리틴 세대를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소비 집단으로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적절한 소비자교육을 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프리틴 세대의 성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및 미디어관여, 신체만족,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규명하고, 남녀 프리틴 세대의 외모관리행동에 미디어관여, 신체만족,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며, 외모관리행동의 영향 변수인 미디어관여, 신체만족, 자아존중감 간의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외모관리행동

#### 1) 의복을 통한 외모관리

외모관리란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타인에게 자신을 알리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Kaiser, 1997). 외모는 신체 변화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정의 될 수 있으며, 사람의 외모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로 얼굴, 체격, 체중, 신장, 웃, 액세서리, 화장품, 안경, 챠취, 머리손질 등을 들 수 있다. 외모가 타인에게 자신을 인식시키고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을 인식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이상적인 외모를 갖

기 위한 노력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남녀의 구분 없이 외모관리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이시원, 2004).

아동이 취학하여 생활의 장이 학교로 옮겨지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취학 전에 비해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의복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된다(하선정, 2001). 더욱이 사춘기의 급격한 신체심리적인 변화로 인하여 자신의 외모에 몰두하게 되고 외모뿐만 아니라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높아진다. 청소년기는 자신에 대해 불확실하고 감성적이기 때문에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도 의복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이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의복이 주는 좋은 느낌이나 분위기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심리적 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난다(윤창숙, 1983). 이명희(2003)는 청소년들의 외모관련행동을 외모관심, 체중관심, 신체만족, 신체수정요구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여자가 남자보다 외모관심, 체중관심, 신체수정요구도가 높았으며, 신체만족도가 낮았다.

의복을 통한 외모꾸미기에는 머리스타일, 액세서리 등도 포함되는데 헤어스타일은 인체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의복과 중요한 공통점을 지닌다. 김정애(2001)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외모관련행동을 섭취조절, 운동, 약물사용, 피부손질, 신체변화, 의복사용, 머리손질, 목욕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 여고생들은 목욕, 피부손질, 머리손질 순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고, 한 달 용돈이 많거나 외향적인 성격일수록 머리손질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 2) 체형관리

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자신의 신체적 특징들은 그들이 또래 집단에서의 인정에 대한 여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신체적 매력에 대한 현대의 미의식은 날씬함과 연관되어 좀 더 마른 몸매가 선호되며 이러한 날씬함에 대한 선호는 성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아동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이미숙(2000)의 연구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은 여자는 매우 마른 체형을, 남자는 다소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신체상으로 선호하였으며, 남자보다 여자에 대해 훨씬 더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것으로 선호한다고 하였다. 마른 체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사회적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 체중인 사람도 체중 조절을 위하여 음식을 조절하며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체중조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정근백 외, 1995). 이미숙(2000)은 연령별로 이상적인 신장을 조사한 결과, 남자 초등학생 집단은 146~150cm를, 중학생은 176~180cm를, 여자 초등학생은 146~150cm를, 중학생은 161~165cm를 선호하였다. 장휘숙(1993)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75%와 중학교 남학생의 37%, 고등학교 남학생의 66.4%가 외모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였으며, 고치고 싶은 신체 부위에서는 여학생은 눈과 코, 남학생은 키를 가장 많이 고치고 싶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나타내었다.

## 2. 미디어관여

미디어는 현실을 인식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화 도구로서, 미디어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관심을 미디어관여라 할 수 있다.

TV는 동시 또는 통합적인 자극에 의하여 현실의 인상에 대한 전달이 강하고 접촉이 용이하여 현실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들의 의식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전용민, 2003).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외부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시간의 대부분을 TV 미디어와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숙, 2000). 김수영(2004)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다른 세대에 비하여 TV를 보는 시간이 가장 길고, TV 프로그램의 내용을 가장 빠르게 모방하며, 주위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TV 속 스타들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형성하는 TV를 통해 제시되는 이상적인 미의 기준은 피부관리, 다이어트, 운동조절, 화장품사용, 의복착용과 같은 외모관련행동을 촉진시킨다(Block & Richins, 1992). 김민지(2000)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TV를 많이 볼수록 유행성이 높고, 유행에 관심이 높을수록 TV를 통해 본 의복에 관심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17-25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미영(1997)의 연구에서는 대중매체에 대한 노출이나 관심이 클수록 체중조절행동을 많이 하고, 대중매체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커졌다. 이미숙(2000)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연예인 모방행동이 높을수록 신체평가, 외모관심, 체중관심이 높고, TV 시청량과 TV 관여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

고 외모와 체중에 높은 관심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 3. 신체만족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는 개인의 사고와 행동,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체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체중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다르고(Markus et al., 1987), 신체불만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불안정도가 높다는 연구(Cash et al., 1983) 결과는 자기 신체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짚작케 한다.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넘어가는 2-3년 동안 성장 시기에 있어서 여자가 2년 정도 앞서지만,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이 시기에 급성장을 하게 된다. 이 시기의 신체변화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급속한 변화 과정과 개인차 때문에 이들은 매우 당황하고 불안하며 심리, 사회적인 밸ан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준재, 꽈금주, 1994). 이와 함께 자아의식이 높아지고 신체와 신체 기능에 대한 지식도 증가하며 또래나 타인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의식하고 이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한다. 이때 신체에 대한 평가는 신체 이미지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윤진, 1993).

대부분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기 외모에 대한 평가는 남자보다 여자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며, 자신의 신체 중 어떤 부분을 성형하기를 바라는 경향도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애란, 김양진, 1996; 구정화, 1994). 한국청소년개발원(2000)에 따르면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만족도가 낮았는데 이는 여자가 신체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은 자신이 이상적인 외모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외모만족도가 낮아져 상실감을 가지며, 성형, 화장, 체중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외모향상행동을 하게 된다(전용민, 2003). 또한, 의복을 통해 긍정적인 모습을 형성하려 하며 신체적 자아를 표현하고 기분을 향상시키려 한다(하주연 외, 2005). 조선명(1999)의 연구에서도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수록 의복을 통해 신체모습을 보완하고 향상시키려 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가지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자아에 대한 만족감은 청소년기의 주 발달과

제인 자기존중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Knox et al., 1998), 남성은 신체의 능력과 기능에 대한 평가가 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여성의 자아존중감은 외모에 대한 매력지각과 상관이 높다(Davis & Katzman, 1998). 이는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상적 신체이미지 조건은 매력적인 외모가 중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김은경(2005)의 연구에서는 남녀아동 모두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고 특히 일반자아존중감이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성별에 관계 없이 신체만족과 외모만족이 자아존중감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존중해주는 태도로서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는 개인적인 가치감(Atwater, 1992)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아동기 동안 현저한 발달을 이루며, 7~8세경에 이르러 사회적 비교 능력이 확대되면서, 누가 더 예쁘고, 공부 잘하고, 달리기를 잘하는지 등등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데 한번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이 계속될 때까지 거의 유지된다(서윤경, 2005).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주요 시기인 학령기와 사춘기 동안 새로운 신체상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 파악에 보다 기능적으로 대응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최정아, 1997). 청소년기에 외모와 의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외모향상 및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체중조절행동이나 의복행동 등의 외모관리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고은기(1986)에 따르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복의 자립성, 관리성이 높았고, 낮을수록 또래집단에 대한 의복 동조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세대의 환경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을 한미숙(2002), 김은경(2005)의 연구를 토대로 4개의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즉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가를 나타내는 일반 자아존중감, 친구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보는 관념체계인 사회

자아존중감, 교사나 동급생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느끼는 대로 표현하는 학교자아존중감, 가정생활에서 얼마나 원만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가정자아존중감으로 세분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측정도구

##### 1)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행동은 전용민(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의복관심, 체중관리, 신장관리, 헤어/피부관리에 관한 총 20문항을 프리틴 세대의 연령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 2) 미디어관여

미디어관여는 TV 시청시간, TV 관여, 연예인 모방으로 구성되었다. TV 시청시간은 1주일 동안에 TV를 시청한 총 시간을, TV 관여와 연예인 모방은 이미숙(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각각 5문항 씩 사용하였다.

##### 3) 신체만족

신체만족은 Cash and Pruzinsky(1990)가 개발한 신체-자아에 관한 다차원척도(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MBSRQ)를 국내에서 타당성을 검증한 조선명(1999)의 연구를 참조하여 총 1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 4) 자아존중감

Coopersmith(1967)의 자아존중감 검사(Self-Esteem Inventory)를 국내에서 타당성을 검증한 한미숙(2002)과 김은경(2005)의 연구에서 24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하위척도별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일반, 가정, 학교자아존중감은  $\alpha=.64\sim.67$ 로 비교적 신뢰도가 높았으나, 사회자아존중감은  $\alpha=.45$ 로 낮게 나타났다. 타당도 검토를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지 않아 타당도를 얻을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후속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중·고등학생과 초등학교 4-5학년을 각각 대상으로 한 한미숙(2002)과 김은경(2005)의 연구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아존중감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이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2005년 9월 서울시 마포구 소재 초등학교 6학년 남녀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5년 10월 3일부터 10월 24일까지 강남과 강북에 소재하고 있는 5개 초등학교 5-6학년 남녀 학생에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77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45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분포경향을 살펴보면, 5학년 40.4%, 6학년 60.0%, 남학생 49.8%, 여학생 50.2%, 강북 40.8%, 강남 59.2%를 차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 신뢰도 검증, t-test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프리틴 세대의 외모관리행동의 하위 차원

프리틴 세대의 외모관리행동을 요인분석 한 결과는 <표 1>과 같으며, 요인분석 시 요인 부하량이 .40 이하이거나 여러 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보인 문항을 제외하여 총 14개의 문항으로부터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총 설명력은 56.97%이며, 신뢰도 분석 결과  $\alpha=.84, .79, .75$ 로 각각 나타났다. 요인 1은 평소 유행하는 스타일, 의복, 액세서리와 색상을 고려해서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하는가에 대한 5문항과 머리 염색이나 파마 등을 하며 헤어스타일을 자주 바꾸는가에 대한 2문항이 포함되어 의복관심/헤어관리로 명명하였으며, 총 변량의 25.37%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2는 체중관리요인으로 평소 비만에 대해 걱정하며, 체중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4문항이 포함되었고, 총 변량의 19.5%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3은 키가 커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 대한 2문항으로 신장관리로 명명하였으며, 총 변량의 12.1%로 나타났다.

#### 2. 프리틴 세대의 외모관리행동 및 미디어관여, 신체만족, 자아존중감의 성차

프리틴 세대의 성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미디어관여, 신체만족,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lt;표 1&gt; 프리틴 세대의 외모관리행동 요인구조 및 신뢰도 (n=458)

| 문항내용 및 요인명                                   |               | 요인 1          | 요인 2          | 요인 3 |
|--|---------------|---------------|---------------|------|
| <b>요인 1. 의복관심/헤어관리</b>                       |               |               |               |      |
| 나는 유행하는 스타일의 옷을 산다                           | .78           | .07           | .06           |      |
| 나는 옷을 잘 입는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노력한다                  | .75           | .18           | .01           |      |
| 나는 색과 디자인이 잘 어울리는 옷을 산다                      | .70           | -.03          | .11           |      |
| 나는 새로 유행하는 옷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친구들과 얘기한다           | .70           | .15           | .06           |      |
|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신발과 가방을 옷에 맞추려고 신경쓴다            | .69           | .12           | .22           |      |
| 나는 머리 손질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다                        | .63           | .13           | .17           |      |
| 나는 머리 염색이나 파마 등을 하며 헤어스타일을 자주 바꾼다            | .62           | .14           | -.08          |      |
| <b>요인 2. 체중관리</b>                            |               |               |               |      |
| 나는 항상 비만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 .03           | .82           | -.02          |      |
| 나는 다른 사람이 살렸다는 소리를 하면 내 몸무게가 늘지 않았어도 신경이 쓰인다 | .22           | .78           | -.03          |      |
| 나는 체중이 조금만 변해도 신경을 쓴다                        | .18           | .78           | -.06          |      |
| 나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음식을 안 먹은 적이 있다                | .14           | .67           | .13           |      |
| 나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살이 찌는 식품은 안 먹는다         | .03           | .52           | .30           |      |
| <b>요인 3. 신장관리</b>                            |               |               |               |      |
| 나는 키가 커지기 위해서 우유나 건강식품을 먹는다                  | .12           | .04           | .87           |      |
| 나는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는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한다               | .14           | .08           | .85           |      |
| 고유근<br>누적변량(%)                               | 4.39<br>25.37 | 2.09<br>44.90 | 1.50<br>56.97 |      |
| 신뢰도 계수                                       | .84           | .79           | .75           |      |

&lt;표 2&gt; 성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미디어관여, 신체만족, 자아존중감의 차이

| 성 별   | 남학생(n=228)           |      | 여학생(n=230) |      | t값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 외모관리  | 의복관심/헤어관리            | 2.06 | .68        | 2.70 | .80  | -9.358*** |
|       | 체중관리                 | 2.11 | .91        | 2.58 | .92  | -5.371*** |
|       | 신장관리                 | 3.34 | 1.25       | 3.24 | 1.22 | .892      |
| 미디어관여 | TV 시청시간 <sup>a</sup> | 3.83 | 2.76       | 4.28 | 2.57 | -.774     |
|       | TV 관여                | 2.67 | .84        | 2.97 | .81  | -3.915*** |
|       | 연예인 모방               | 1.90 | .90        | 2.59 | .92  | -8.170*** |
| 신체만족  | 얼굴                   | 3.43 | .87        | 3.17 | .83  | .638**    |
|       | 상체                   | 3.26 | .84        | 3.01 | .76  | 3.504**   |
|       | 하체                   | 3.23 | .89        | 2.70 | .90  | .693***   |
|       | 전체외모                 | 3.20 | .87        | 2.87 | .92  | 1.426***  |
| 자아존중감 | 가정 자아존중감             | 3.69 | .74        | 3.72 | .78  | -.380     |
|       | 일반 자아존중감             | 3.37 | .77        | 3.38 | .71  | -.222     |
|       | 학교 자아존중감             | 3.13 | .95        | 3.09 | .92  | .462      |

<sup>a</sup>=하루 평균 시청시간; \*p<.05, \*\*p<.01, \*\*\*p<.001

## I) 외모관리행동의 성차

의복관심/헤어관리 및 체형관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3, 6학년을 대상으로 한 하선정(2001)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복 및 유행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며, 10대 청소년들이 이상적인 신체상으

로 남자는 다소 마른 체형을, 여자는 매우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미숙(2000)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현대사회의 미의 기준인 마른 체형이 여성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며, 사춘기 신체성장이 대체로 여자에서 먼저 나타나고 체지방이 높아지는 과정을 겪는 것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 2) 미디어관여의 성차

TV 관여와 연예인 모방에서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TV 관여를 더 많이 하는 것은 남학생은 인터넷 게임이나 운동에 대한 대화나 활동을 통하여 또래간의 유대관계가 이루어지는 반면, 여학생은 또래들과의 주된 대화거리가 인기 연예인에 대한 정보, TV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많기 때문에 TV 프로그램의 내용을 관심있게 시청하기 때문(이미숙, 2000)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연예인 모방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연예정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드라마 속 인물을 모방함으로써 사회화를 한다는 박세권(1995) 및 김수영(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 3) 신체만족의 성차

얼굴, 상체, 하체, 전체적인 외모 만족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급속한 신체변화는 신체이미지의 변화를 가져오고 전형적으로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이끌어낸다고 한 Medinnus and Johnson(1976)과 같은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사춘기 시작시기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년 정도 앞서며, 사춘기의 성장급등을 경험하고 있는 여학생들이 급격한 신체변화과정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신체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신체 외모에 대한 관심의 집중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 4) 자아존중감의 성차

자아존중감의 하위차원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남녀 모두 모든 측면, 특히 가정자아존중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가정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출산율의 감소로 한두 명의 자녀만을 두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한 아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 3. 프리틴 세대의 외모관리행동에 미디어관여, 신체만족 및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

프리틴 세대의 외모관리행동에 미디어관여, 신체만족,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남녀 집단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 I) 의복관심/헤어관리

남학생 집단에서는 연예인 모방( $\beta=.597$ )이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42.3%이었고, 여학생 집단에서는 연예인 모방( $\beta=.541$ ), 일반자아존중감( $\beta=.225$ )순으로 영향을 미쳤고, 설명력은 45%로 나타났다. 즉, TV속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높고 모방을 많이 할수록 의복과 머리스타일 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표 3>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영향 요인의 회귀분석결과

| 종속변인          | 성별  | 독립변인                                     | $\beta$                        | t 값  | R <sup>2</sup> | F 값       |
|---------------|-----|--|--------------------------------|--|----------------|-----------|
| 의복관심/<br>헤어관리 | 남학생 | 연예인 모방                                   | .597                           | 10.506***                                  | .423           | 23.085*** |
|               | 여학생 | 연예인 모방<br>일반 자아존중감                       | .541<br>.225                   | 9.533***<br>3.946***                       | .450           | 25.946*** |
| 체중관리          | 남학생 | 신체 만족<br>TV 관여<br>학교 자아존중감               | -.301<br>.164<br>-.149         | -4.172***<br>2.347*<br>-2.077*             | .161           | 6.044***  |
|               | 여학생 | 신체 만족<br>일반 자아존중감<br>연예인 모방<br>TV 관여     | -.385<br>.172<br>.164<br>.136  | -5.685***<br>2.610*<br>2.501*<br>2.098*    | .264           | 11.364*** |
| 신장관리          | 남학생 | 학교자아존중감<br>연예인모방                         | -.190<br>.145                  | -2.565*<br>2.041*                          | .098           | 3.395**   |
|               | 여학생 | 학교 자아존중감<br>TV 관여<br>TV 시청시간<br>일반 자아존중감 | -.232<br>.212<br>-.194<br>.182 | -3.066**<br>3.062**<br>-3.007**<br>2.593** | .162           | 6.139***  |

\* $p<.05$ , \*\* $p<.01$ , \*\*\* $p<.001$

났는데, 이는 연예인들을 동경하여 그들의 외모나 옷차림에 관심을 갖고 따라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외모와 의복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2) 체중관리

남학생은 신체만족( $\beta=-.301$ ), TV 관여( $\beta=.164$ ), 학교 자아존중감( $\beta=-.149$ )이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16.1%이었고, 여학생은 신체만족( $\beta=-.385$ ), 일반자아존중감( $\beta=.172$ ), 연예인모방( $\beta=.164$ ), TV 관여( $\beta=.136$ )가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26.4%로 나타났다. 프리틴들이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고, TV 관여가 높을수록, 체중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날씬한 것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는 현대 사회의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해, 마른 체형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추구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체중관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미숙(2000)의 연구에서와 같이 TV 관여가 높을수록 자신이 이상적인 신체상보다 뚱뚱하다고 여겨 이상적인 날씬한 신체상을 갖기 위해 체중관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학생은 학교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체중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은 타인의 인정과 관심이 자신의 신체조건에 기인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신체적 외모를 통해 학교에서 선생님과 또래들로부터 관심과 인정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여 바람직한 마른 체형을 갖기 위해 체중관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학생은 연예인모방이 많을수록 체중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회적 미의 기준이 되는 마른 체형이 특히 연예인의 모습에서 강조되어 나타나므로 이들의 외모에 근접하기 위해 체중관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3) 신장관리

남학생은 학교 자아존중감( $\beta=-.190$ ), 연예인 모방( $\beta=.145$ )이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9.8%이었고, 여학생은 학교 자아존중감( $\beta=-.232$ ), TV 관여( $\beta=.212$ ), TV 시청시간( $\beta=-.194$ ), 일반 자아존중감( $\beta=.182$ )이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16.2%이었다. 학교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신장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서구의 미의 기준인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 우리사회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학교에서의 대인관계에 자신이 없을 때 키가

큰 조숙한 모습을 통해 선생님과 또래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아 학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자 하여 신장관리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학생은 TV 관여가 높을수록 신장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큰 키가 멋진 모습으로 TV를 통해 보여지므로 TV에 관심을 갖고 몰두할수록 큰 키를 부러워하게 되어 신장관리행동을 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TV 시청시간이 많을수록 신장관리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적정한 TV 시청은 매력적인 사람들과의 동일시를 가능하게 해주고 많은 종류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화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 적정시간을 넘어 지나친 TV 시청은 사고와 행동이 수동적이 되고 장시간의 TV 시청 시의 자세 등으로 인하여 수동적이며 더 나아가 의욕상실 등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여학생은 일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복관심/헤어관리 및 체중관리, 신장관리 등 외모관리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이므로 자신이 유능하고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여기게 되면 자신의 신체적 외모도 가치 있게 여기게 되므로 의복 및 헤어, 체중, 신장 등의 외모에 대한 관심과 관리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4. 프리틴 세대의 미디어관여가 신체만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외모관리행동의 영향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남녀 집단으로 구분하여 미디어관여가 신체만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 1) 미디어관여가 신체만족에 미치는 영향

<표 4>와 같이 여학생 집단에서 TV 관여( $\beta=-.203$ , 설명력 5.2%)만이 신체만족에 영향을 미쳤으며, 남학생 집단에서는 미디어관여의 모든 하위차원이 신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경우 TV 관여가 높을수록 신체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TV 관여를 많이 할수록 자신과 이상적인 신체상과의 차이가 많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미숙(2000)의 연구결과와 같이, TV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인기연예인의 신체모습이 이상적인 기준이 되어, 프리틴들이 자신

&lt;표 4&gt; 미디어관여 하위차원이 신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종속변인 | 성별  | 독립변인  | $\beta$ | t값       | R <sup>2</sup> | F값      |
|------|-----|-------|---------|----------|----------------|---------|
| 신체만족 | 여학생 | TV 관여 | -.203   | -2.857** | .052           | 4.146** |

\*\*p&lt;.01

&lt;표 5&gt; 미디어관여 하위차원이 자아존중감 하위차원에 미치는 영향

| 종속변인     | 성별  | 독립변인  | $\beta$        | t값                   | R <sup>2</sup> | F값       |
|----------|-----|-------|----------------|----------------------|----------------|----------|
| 일반 자아존중감 | 여학생 | 연예인모방 | .232           | 3.399**              | .061           | 4.890**  |
| 학교 자아존중감 | 남학생 | TV 관여 | -.190          | -2.693**             | .087           | 7.111*** |
|          |     | 연예인모방 | -.141          | -2.031*              |                |          |
| 가정 자아존중감 | 여학생 | 연예인모방 | -.212          | -3.125**             | .070           | 5.669**  |
|          |     | TV 관여 | -.175<br>-.168 | -2.582**<br>-2.394** | .079           | 6.428*** |

\*p&lt;.05, \*\*p&lt;.01, \*\*\*p&lt;.001

의 신체적 외모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크게 느낌으로 인해 신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 2) 미디어관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표 5>와 같이 남학생은 자아존중감의 하위차원 중 학교 자아존중감에만 TV 관여( $\beta=-.190$ )와 연예인 모방( $\beta=-.141$ )이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8.7%였다. TV 관여가 높고 연예인 모방을 많이 할수록 학교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난 것은 남학생들의 주요 관심사는 스포츠와 같은 활동적 측면이나 인터넷 게임 등으로, 또래집단과 관심사가 다른 TV 프로그램 내용과 연예인에 몰두하게 되면 또래와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치 않으며, 학업에 대한 선생님의 염려로 인한 갈등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학생은 일반 자아존중감에는 연예인 모방( $\beta=.232$ )이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6.1%였다. 학교 자아존중감에는 연예인 모방( $\beta=-.212$ )이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7%였다. 가정 자아존중감에는 연예인 모방( $\beta=-.175$ )과 TV 관여( $\beta=-.168$ )가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7.9%였다. 즉 연예인 모방이 많을수록 일반 자아존중감이 높고, 학교 자아존중감과 가정 자아존중감은 낮으며, TV 관여가 높을수록 가정 자아존중감은 낮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연예인 모방을 통해 자신과 연예인을 동일시함으로써 연예인이 가진 이상적인 특성이 자신에게도 부여된 것으로 생각하여 이상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여 일반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학교

와 가정에서는 연예인 모방행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반응을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는 또래동조가 강한 시기이며, 의복규범에 대한 동조가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지나친 연예인 동조는 또래의 의모규범으로부터의 일탈에 의한 친구들의 시샘과 선생님의 염려, 가정에서는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에 반해 지나치게 연예인을 모방하고 TV에 몰두하는 것은 부모들과의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연예인 모방이 많아질수록 학교와 가정에서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5. 프리틴 세대의 신체만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남녀 프리틴 세대의 신체만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신체만족이 남학생은 가정 자아존중감( $\beta=.389$ ), 일반 자아존중감( $\beta=.373$ ), 학교 자아존중감( $\beta=.330$ )에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각각 15.1%, 13.9%, 10.9%였다. 여학생은 가정 자아존중감( $\beta=.410$ ), 학교 자아존중감( $\beta=.375$ ), 일반 자아존중감( $\beta=.354$ )에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각각 16.8%, 14%와 12.5%로 나타났다. 즉 신체만족이 클수록 모든 차원의 자아존중감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아동 모두 신체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김은경(2005)과 일치하는 것이다.

&lt;표 6&gt; 신체만족이 자아존중감 하위차원에 미치는 영향

| 종속변인     | 성별  | 독립변인 | $\beta$ | t값       | R <sup>2</sup> | F값        |
|----------|-----|------|---------|----------|----------------|-----------|
| 가정 자아존중감 | 남학생 | 신체만족 | .389    | 6.339*** | .151           | 40.182*** |
|          | 여학생 | 신체만족 | .410    | 6.795*** | .168           | 46.165*** |
| 일반 자아존중감 | 남학생 | 신체만족 | .373    | 6.052*** | .139           | 36.625*** |
|          | 여학생 | 신체만족 | .354    | 5.719*** | .125           | 32.701*** |
| 학교 자아존중감 | 남학생 | 신체만족 | .330    | 5.250*** | .109           | 27.560*** |
|          | 여학생 | 신체만족 | .375    | 6.101*** | .140           | 37.224*** |

\*\*\*p&lt;.001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프리틴 세대인 초등학교 5-6학년 남녀 학생의 외모관리행동과 이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미디어관여, 신체만족,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규명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변인에 대한 성차에 있어서는, 외모관리 행동의 의복관심/헤어관리와 체중관리에서, 미디어관여의 TV 관여와 연예인 모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만족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에 있어서는, 남학생 집단에서는 의복관심/헤어관리에 연예인 모방이 양의 영향을, 체중관리에 신체만족과 학교자아존중감이 음의 영향을, TV 관여는 양의 영향을, 신장관리에 학교 자아존중감이 음의 영향을, 연예인 모방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집단에서는 의복관심/헤어관리에 연예인 모방과 일반자아존중감이 양의 영향을, 체중관리에 신체만족이 음의 영향을, 일반자아존중감, 연예인모방, TV 관여도가 양의 영향을, 신장관리에 학교자아존중감과 TV 시청시간이 음의 영향을, TV 관여와 일반자아존중감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학생 집단에서는 미디어관여의 하위차원 모두 신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V 관여와 연예인 모방이 학교 자아존중감에 음의 영향을, 신체만족이 자아존중감의 모든 하위차원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집단에서는 TV 관여가 신체만족에 음의 영향을, 연예인 모방이 일반 자아존중감에 양의 영향을, 학교 자아존중감에 음의 영향을, 가정 자아존중감에 연예인 모방과 TV 관여가 양의 영향을, 신체만족은 자아존중감의 모

든 하위차원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프리틴 세대는 이전의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여 조숙하고 자기주장이 뚜렷하여 주체적인 소비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인지적 발달이 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소비 집단으로써 주목하기보다는 이를 세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리틴 세대의 자기표현의 중요한 척도이자 소비행동의 한 측면인 외모관리행동과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밝힘으로써, 프리틴 세대의 성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에서 남녀 학생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디어관여가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들이 현실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고 자극에 예민한 시기이므로 미디어의 여과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분별한 모방행동과 유행추종 등의 외모관련소비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성장기에 가장 중요한 외모관리행동 중의 하나인 신장관리가 TV 시청시간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적정시간을 넘은 지나친 TV 시청은 사고와 행동이 수동적이 되고 장시간의 TV 시청 시의 자세 등으로 인하여 수동적이며 더 나아가 의욕상실 등에 의해 초래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여학생에게서, 연예인 모방을 통해 이 시기의 주 발달과제인 일반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이상적인 연예인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이상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된 것이지 자신의 실제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 성취한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와 안목을 기르는데 방해가 되거나 혹은 더 나아가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습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미디어에 의해 형성되는 소비행동이나 자아존중감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프리틴 세대에 대해 TV 내용이나 시청시간에 관한 적절한 지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개인의 자아가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으로써 외모관리행동은 개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학교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체중관리나 혹은 신장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 시기에는 타인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관심이 자신의 신체조건에서 기인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모관리 행동을 통해 긍정적인 모습을 형성하여 학교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은 일반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큰 시기이므로 자신이 유능하고 성공적이고 가치있다고 여기게 되면 자신의 신체적 외모도 가치 있게 여기게 되므로 외모에 대한 관심과 관리행동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외부로 표현하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노력으로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프리틴 세대의 외향적인 자기표현을 소비성향에만 주목하여 소비대상으로서의 시장성만을 고려하지 말고 이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을 위한 과정의 폭넓은 이해의 근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집단을 서울에 거주하는 5-6학년 남녀 학생에 한정하였으므로, 전체 프리틴 세대의 성향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지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측정 척도로 선행연구의 척도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 사회자아존중감 척도의 타당도가 낮아 제외되었으므로, 측정도구의 재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관여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으로서 TV 시청 시간 및 TV 관여, 연예인 모방을 조사하였으나, 일상 생활과 TV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인해 그 영향의 정확한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TV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영향을 조사하는데 효과적인 측정방법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모관리행동의 하위 차원으로 의복관심/헤어관리, 체중관리, 신장관리 3개의 차원을 측정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프리틴 세대에 대한 다각적 방향의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한 다른 변수들의 발견과 더불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애란, 김양진. (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기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667-681.
- 고은기. (1987).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구정화. (1994).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관한 연구-성별, 학교변인별, 가정변인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 95-113.
- 김민지. (2000). *매스미디어가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영. (2004). *트윈세대 아동의 의복 관심도, 연예인 동조성 매스미디어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경. (2005). *아동의 외모만족도,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학교생활부적응간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경, 최혜선, 강여선. (2002). *트윈세대(Tween Generation) 아동복의 치수적합에 관한연구-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5), 691-702.
- 김정애. (2001). *여고생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세권. (1995).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대중매체의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윤경. (2005). *청소년의 외모 만족도와 자존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길연, 장유경, 이지연, 정윤경. (2005). *발달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신관호. (1996). *아동의 신체존중감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차이*.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미영. (1997). *대중매체가 여성의 다이어트와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진. (1993). *청소년 심리학*. 도서출판 서원.
- 윤창숙. (1983).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나타난 TV의 영향에 관한 연구-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명희. (2003). *청소년의 외모관련행동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9/10), 1101-1111.
- 이미숙. (2000).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연예인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선재. (1984). 성인 여성의 의복행동과 자아개념관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 여성연구*, 23, 257-285.
- 이시원. (2004). *공정사적 자기의식에 따른 바디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

## 학위 논문.

- 이춘재, 곽금주. (1994). 자기상(Self-Image)으로 본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발달(1)-연령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7(2), 119-135.
- 장희숙. (1993). 청년심리학. 서울: 도서출판 장승.
- 전용민. (2003). 여자 청소년의 영상매체 이용도, 사회적 가치와 의복 및 신체태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근백, 임동규, 이영주, 이속기, 윤승옥. (1995). 인천시내 중고등학생들의 디아이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16(4), 254-260.
- 조선명. (199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00-R10.
- 최정아. (1997). 자의식과 자존감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프리틴세대’ 패션시장 귀한 몸. 10~14세, 프리틴(Preteen)을 잡아라. (2005, 6. 26). *파이낸셜뉴스*. 자료검색일 2005, 7. 6.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14&article\\_id=0000180921](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14&article_id=0000180921)
- 하선정. (2001).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개념과 성별 및 학년에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하주연, 고애란, 정미실. (2005). 여고생의 감각추구성향과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 행동 및 헤어스타일 태도. *한국의류학회지*, 29(5), 715-726.
- 한미숙.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요인에 따른 의복행동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twater, E. (1992). *Adolescence* (3rd ed.). Prentice Hall.
- Bloch, P. H. & Richins, M. L. (1992). You look marvelous: The pursuit of beauty and the marketing concept. *Psychology and Marketing*, 9, 3-15.

- Cash, T. F., Cash, E. W. & Butters, J. W. (1983). Mirror, mirror, on the wall...?: Contrast effects and self-evaluations of physical attractive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351-358.
- Cash, T. F. & Pruzinsky, T. (1990). *Body image,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oopersmith, S. (1967).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Davis, C. & Katzman, M. (1998). Chinese men and women in the United States and Hong Kong-Boys and self-esteem ratings as a prelude to dieting and exercis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3, 99-102.
- Hansen, C. H. & Hansen, R. D. (1988). Finding the face in the crowd-An anger superiority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917-924.
- Jacobi, L. & Cash, T. F. (1994). In pursuit of the perfect appearance-Discrepancies among self-ideal percept of multiple physical attribut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5), 379-396.
- Kaiser, S. B. (1997).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 co.
- Knox, M., Funk, J., Elliot, R., & Bush, E. G. (1998). Adolescents' possible selves and their relationship to global self-esteem. *Sex-Roles*, 39(1/2), 61-80.
- Markus, H., Hamill, R., & Sentis, K. (1987). Thinking fat: self-schemas for bodyweight and the processing of weight relevant inform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7(1), 50-71.
- Medinnus, G. R. & Johnson, R. C. (1976).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2nd ed.). N. Y.: John Wiley & Son's Inc.